

# 중·한 인식양상 표현 대조연구\*

최재영\*\* · 서지은\*\*\*

## 目 录

1. 들어가는 말
2. 중·한 인식양상 표현
3. 중·한 인식양상 표현의 대응 상황과 발생원인
4.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언어학에서의 양상이란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의미범주이다. 즉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문장층위에서 일정한 형태로 실현될 때 이러한 범주를 묶어 양상이라고 한다. 전통적 분류법에 따르면 양상의 유형에는 동적양상(dynamic modality)과 의무양상(deontic modality), 인식양상(epistemic modality)이 있다.<sup>1)</sup> 이 중 인식양상이란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범주로서, 이는 전통적으로 ‘명제에 대한 확신성(certainty)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sup>2)</sup> 인식양상은 다시 확

\* 이 연구는 201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 부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문과 석사과정생.

1) 이러한 삼분법 외에도 뿌리양상(root modality)과 인식양상, 의무양상과 인식양상으로 나누는 이분법, 동작주 지향적(agent-oriented), 화자 지향적(speaker-oriented), 인식적(epistemic), 그리고 종속적(subordinating) 양상으로 나누는 사분법 등이 존재한다.

신성의 정도에 따라 ‘필연성(necessity)/확신성(certainty)’<sup>3)</sup>, ‘개연성(probability)’, ‘가능성(possibility)’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국어문법학계와 한국어문법학계에서도 해당 언어의 인식양상 표현을 확신성의 정도에 따라 위와 같이 삼분하고 있다.

인식양상과 관련한 중·한 혹은 한·중 대조연구로는 왕례량(2006), 학연영(2008), 엄녀(2008), 이옥환(2010), 이영(2011) 등이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왕례량(2006)은 한국어 보조용언과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를 대조하였는데, 특히 보조용언 중 추측을 나타내는 ‘보다’, ‘싶다’는 중국어의 부사 ‘好像’, ‘差不多’ 혹은 조동사 ‘可能’과 대응된다고 언급하였다. 학연영(2008)은 한국어의 양상 술어 ‘-겠-’, ‘-ㄹ 것이-’, ‘ㄹ 수 있-’과 중국어의 양상조동사 ‘要’, ‘会’, ‘能’을 대조하였는데, 이 중 인식양상의 의미영역에서는 ‘(가)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나)정보의 획득 방법, (다)정보의 외면화 정도, (라)청자 지식에 대한 화자의 가정’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엄녀(2008)는 중국어의 ‘能’과 한국어의 ‘-(으)ㄹ 수 있다’를 중심으로 이들의 양상 의미와 부정 형식의 문법적 특성에 관하여 대조하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례량(2006), 학연영(2008), 엄녀(2008) 등의 연구는 각 언어의 양상표현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대조해보는 방식인 미시적 관점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인식양상 표현 내 성분 간의 상대적인 확신성 정도를 분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한 혹은 한·중 인식양상 표현의 대응양상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패턴을 이루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위의 연구에 비하여 이옥환(2010), 이영(2011)은 인식양상 표현의 대조 항목범위를 기존연구보다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인식양상 표현을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재연(2006:79)을 참조할 것.

3) 학자에 따라 ‘필연성(necessity)’ 또는 ‘확신성(certainty)’이라는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 이들 모두 확신성이 가장 강한 경우를 지칭하고 있다.

이옥환(2010)은 한국어의 총 7가지 인식양상 표현인 ‘-(으)ㄴ 것이다, -(으)ㄴ/는/(으)ㄴ 모양이다, -(으)ㄴ/는/가/나 보다, -(으)ㄴ/는/(으)ㄴ 것 같다, -(으)ㄴ/는/(으)ㄴ 듯하다, -(으)ㄴ/는/(으)ㄴ 듯싶다, -(으)ㄴ 수 있다’와 중국어의 ‘得, 要, 会, 应该, 可能’을 대상으로 확신성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한 후 두 언어를 대조 연구하였다. 이옥환(2010)은 한국어 인식양상 표현을 확신성에 따라 분류할 때 한 가지 기준만을 사용하였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이 ‘철수는 부자이다’를 명제로 한 인식양상 표현이 후행절 ‘사실 부자가 아니다’와 대조 관계를 지니는지의 여부에 따라 확신성 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 (1) a. \*철수는 부자일 것이지만, 사실 부자가 아니다.
- b. \*철수는 부자일 모양이지만, 사실 부자가 아니다.
- c. \*철수는 부자인가 보지만, 사실 부자가 아니다.
- d. 철수는 부자일 것 같지만, 사실 부자가 아니다.
- e. 철수는 부자일 듯하지만, 사실 부자가 아니다.
- f. 철수는 부자일 듯싶지만, 사실 부자가 아니다.
- g. ?철수는 부자일 수 있지만, 사실 부자가 아니다.<sup>4)</sup>

이 논의에 따르면, (a, b, c)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대조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확실성 판단’이며, (d, e, f)는 대조 관계가 성립하므로 ‘개연성 판단’이고, (g)는 대조 관계가 아주 어색하므로 ‘가능성 판단’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b, c)와 (g)는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대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불구하고 각각에 서로 다른 확신성 정도를 부여하였다. 즉 두 부류의 양상표현의 확신성 정도가 다르다고 본 근거가 부족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인식양상 표현에 단일기준을 사용하여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나타난 필연적 결과이다.

4) 이옥환(2010)에서 재인용.

이영(2011)은 한국어의 총 10가지의 인식양상 표현 ‘-(으)르 것이다, -(으)ㄴ/는/(으)르것 같다, -(으)ㄴ/는/(으)르 모양이다, -(으)ㄴ가/는가/나 보다, -(으)ㄴ/는/(으)르 듯하다, -(으)ㄴ/는/(으)르 듯싶다, -(으)르지 모르다, -(으)르 수 있다, -(으)ㄴ가/는가/나 싶다, -(으)ㄴ가/는가/나 보다’가 중국어로는 어떠한 표현으로 대응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한국어의 인식양상 표현을 분류하는데 있어 ‘가능성’, ‘막연성’, ‘개연성’, ‘확연성’, ‘필연성’ 등의 술어를 혼용하는 가운데 이들 사이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체 인식양상 표현 성분 간의 확신성 정도를 비교하는 절차가 생략한 채 단순히 개별 예문 안에 놓인 각각의 인식양상 표현만을 관찰한 후 위의 술어 중 어느 하나 내지는 둘로 정의내리고 있다.

한편 이상의 기존연구에는 대응결과에 대한 원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공통적인 한계점이 있다. 즉, 중·한 혹은 한·중 인식양상 표현 간의 대응관계에 대해 자세한 기술 작업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해석 작업의 단계로까지 나아간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식양상 표현의 대조 항목 범위를 보다 확장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 인식양상 표현의 확신성 정도를 분류하기 위한 타당성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셋째, 중·한 혹은 한·중 인식양상 표현간의 대응상황 분석 및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는 중국어 및 한국어의 전체 인식양상 표현을 확신성에 따라 분류한 후, 각 등급의 양상표현이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어떻게 대응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대응이 발생하는 원인도 함께 규명해보고자 한다.

## 2. 중·한 인식양상 표현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식양상은 화자가 어떠한 명제가 나타내는 정

보에 대하여 얼마만큼 확신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신성 정도를 세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sup>5)</sup>

[필연]necessity	화자가 명제의 실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짐
[개연]probability	화자가 명제의 실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강하지는 않지만 중간 이상의 확신을 가짐
[가능]possibility	화자가 명제의 실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약한 확신을 가짐

## 2.1 중국어 인식양상 표현

중국어의 양상표현 즉 양상조동사의 인식양상 의미를 확신성 정도에 따라 구분을 한 학자로는 张洪岩(2001), 朱冠明(2005), 彭利贞(2007), 최재영(2008)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인식양상을 확신성의 정도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각 분류에 해당하는 조동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서로 상이하다.

张洪岩(2001)는 영·중 양상조동사 모두 화자의 판단(modal judgement)에 따른 정도차이가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그 정도를 ‘상(High)’, ‘중(Medium)’, ‘하(Low)’로 나누었다. 이에 따르면 중국어의 경우 ‘상(High)’에 해당하는 조동사로는 ‘得, 要, 需要, 宁愿’, ‘중(Medium)’으로는 ‘愿意, 乐意, 爱, 肯, 敢, 想, 打算, 准备, 应该’, ‘하(Low)’로는 ‘可以, 能, 会, 可能’ 등이 있다.

5) 확신성 정도에 대한 한·중 학자들의 분류는 이외에도 강소영(2002)의 ‘확연, 당연, 개연’, 박재연(2006:81)은 ‘확실성 판단, 개연성 판단, 가능성 판단’, 张洪岩(2001)의 ‘High, Medium, Low’, 夏赛辉·张文忠(2010)의 ‘肯定性, 或然性, 可能性’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문법학계뿐만 아니라, 확신성 정도를 ‘必然(필연)’, ‘盖然(개연)’, ‘可能(가능)’의 술어를 이용하여 삼분하는 일반 중국어문법학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연], [개연], [가능]의 술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張洪岩(2001)의 인식양상 분류

확신성 정도	조동사
상(High)	得, 要, 需要, 宁愿
중(Medium)	愿意, 乐意, 爱, 肯, 敢, 想, 打算, 准备, 应该
하(Low)	可以, 能, 会, 可能

朱冠明(2005)은 전체 양상체계 중 인식양상에 해당하는 조동사로 ‘필연성’은 ‘一定’, ‘개연성’은 ‘应该’, ‘가능성’은 ‘可能’을 각각 대표성분으로 보았다.

朱冠明(2005)의 인식양상 분류

확신성 정도	조동사
필연성(必然性)	一定
개연성(盖然性)	应该
가능성(可能性)	可能

彭利贞(2007)은 ‘필연’의 조동사로 ‘必然, 肯定, 一定, 准, 得, 要’, ‘개연’의 조동사로 ‘会, 应该, 应当, 应, 该, 当’, ‘가능’의 조동사로 ‘可能, 能, 能够’를 제시하고 이를 다시 전형적 조동사와 비전형적 조동사로 분류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전형적 조동사는 ‘要’(필연), ‘会, 应该, 应当’(개연), ‘能, 能够’(가능) 등이다.

彭利贞(2007)의 인식양상 분류

확신성 정도 \ 조동사	전형적 조동사	비전형적 조동사
필연(必然)	要	必然, 肯定, 一定, 准, 得
개연(盖然)	会, 应该, 应当	应, 该, 当
가능(可能)	能, 能够	可能

최재영(2008)은 朱冠明을 포함해 彭利贞이 조동사의 범위 내에 포함시킨 ‘必然, 肯定, 一定, 准’은 조동사의 문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양상조동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인식양상 분류체계를 보면, ‘필연’으로는 ‘得, 要’, ‘개연’으로는 ‘会, 应该, 应当, 应, 该’, ‘가능’으로는 ‘能, 能够’가 있다.

최재영(2008)의 인식양상 분류

확신성 정도	조동사
필연(必然)	得, 要
개연(盖然)	会, 应该, 应当, 应, 该
가능(可能)	能, 能够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문법학계에서는 아직 인식양상을 나타내는 조동사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동사의 통사적 특징에 대한 기준이 일치하지 않고, 또한 인식양상의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 역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는 서론에서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추측’이라고 정의내린 인식양상의 개념에 기초하여, 최재영(2008)이 제시한 양상조동사의 범위 중에서 상용하지 않는 ‘能够’를 제외한 ‘得, 要, 应该, 应当, 应, 该, 会, 能’을 대조의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sup>6)</sup> 아래에서는 이들의 확신성 등급을 재분류하기 위하여 이들의 문법화 과정과 양상의미, 그리고 이에 따른 특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6) 인식양상 의미의 조동사 ‘得, 要, 应该, 应当, 应, 该, 会, 能’을 동사와 부사로 볼 수 없는 통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得, 要, 应该, 应当, 应, 该, 会, 能’은 피수식 성분으로 명사성 목적어가 오지 못하고, ‘了, 着, 过’의 조사가 오지 못하며, 중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사가 아니다. 둘째, ‘得, 要, 应该, 应当, 应, 该, 会, 能’은 주어의 앞에 위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사(양상부사)가 아니다.

## (1) ‘得, 要’와 ‘应该, 应当, 应, 该’

‘得, 要’와 ‘应该, 应当, 应, 该’는 공통적으로 인식양상 뿐 아니라 ‘~해야 한다’는 필요의미의 의무양상도 함께 나타낸다. 이러한 다의성은 이들이 의무양상에서 인식양상으로 문법화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吳福祥(2005:259-260) 역시 ‘의무양상(道义情态) > 인식양상(认识情态)’의 문법화 경로는 하나의 범언어적 현상으로 중국어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得, 要’와 ‘应该, 应当, 应, 该’가 공통으로 의무양상에 속한다 하여도, 두 부류는 의무의 강·약으로 구분되는 의미차이를 갖는다. 예를 들어, 呂叔湘(1944/1993:252)은 객관적 필요(客观的的必要)를 ‘상황/사실에 따른 필요(事实上的的必要)’와 ‘이치에 따른 필요(情理上的的必要)’로 구분하였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조동사로 ‘得, 要’를, 후자에 해당하는 조동사로 ‘应该, 应当, 应, 该’를 제시하였다. 또한 郭昭军·尹美子(2008)는 ‘필요류(必要类)’ 조동사를 정도 부사 ‘最, 很’의 수식가능 여부에 따라 ‘应该, 应当, 应, 该’의 A류와 ‘要, 得’의 B류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두 조동사 부류의 의미차이는 문법화된 후의 인식양상 의미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즉,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得, 要’는 인식양상으로 문법화된 후 확신성 정도가 가장 높은 [필연]을 나타내고, 약한 의무를 나타내는 ‘应该, 应当, 应, 该’는 인식양상으로 문법화된 후 확신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개연]을 나타내게 된다.<sup>7)</sup>

## (2) ‘会, 能’

Bybee *et al.* (1994/2010:332)이 지적하였듯이 ‘능력(ability)’에서 ‘인식적 가능성(epistemic possibility)’으로 문법화되는 경로는 범언어적으로 보이는

7) 李明(2003:228)은 영어의 ‘must’와 같이 의무양상의 ‘필요(必要)’에서 인식양상의 ‘필연(必然)’으로 문법화된 예로 ‘须, 必须, 索’ 그리고 ‘得’를 들고 있다. 한편 夏赛辉·张文忠(2010)은 인식양상을 확신성 정도에 따라 ‘필연성(肯定性)’, ‘개연성(或然性)’, ‘가능성(可能性)’으로 구분하고, 이 중 ‘개연성(或然性)’에 해당하는 예로 ‘应该, 应当, 应, 该’를 제시한 후 이들이 모두 약한 의무(弱义务性)에서 문법화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턴 중 하나이다. 문법화 이론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吕叔湘(1944/1993:246), 朱德熙(1982/2010:62-63), 李明(2001) 등은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 ‘会, 能’이 인식적 기능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曾锦程(2009)은 역사적 문헌자료를 통해 ‘会, 能’이 동적양상의 ‘능력(ability)’에서 인식양상의 ‘가능(possibility)’으로 문법화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볼 때 ‘会, 能’은 모두 ‘~할 수 있다’의 능력을 나타내는 동적양상에서 인식양상으로 문법화된 양상조동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식양상을 나타내는 ‘得, 要’와 ‘应该, 应当, 应该’는 각각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의무양상(강한 의무와 약한 의무)에서, 그리고 ‘会, 能’은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동적양상에서 문법화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양상의 연원은 그 확신성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Bybee *et al.* (1994/2010:278)는 강한 의무(strong obligation)는 추론된 확실성(inferred certainty)으로, 약한 의무(weak obligation)는 개연성(probability)으로, 능력(ability)은 가능성(possibility)으로 문법화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추론된 확실성(inferred certainty)’, ‘개연성(probability)’, ‘가능성(possibility)’은 모두 인식양상에 속하는 것으로, 이들은 각각 본고의 [필연], [개연], [가능]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Bybee *et al.* (1994/2010:278)의 주장을 본고의 논지에 따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동작주 지향적(agent-oriented) <sup>8)</sup>	문법화	인식적(epistemic)	영어 예	중국어 예
강한 의무(strong obligation)	⇒	추론된 확실성 (inferred certainty)	must	得, 要
약한 의무(weak obligation)	⇒	개연성(probability)	should	应该, 应当, 应该
능력(ability)	⇒	가능성(possibility)	may	会, 能

이상 논의를 종합하여 중국어의 인식양상 표현 ‘得, 要, 应该, 应当, 应, 该, 会, 能’을 확신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어의 인식양상 분류

확신성 정도	조동사
[필연]	得, 要
[개연]	应该, 应当, 应, 该
[가능]	会, 能

## 2.2 한국어 인식양상 표현

한국어는 추측을 나타내는 인식양상 표현이 잘 발달된 편인데 대표적 연구로는 선은희(2003)와 윤혜진(2010)이 있다.

선은희(2003)는 5종 한국어 교재<sup>9)</sup>에 공통으로 출현하는 8종의 추측 표현 ‘-겠-, -(으)ㄴ 것이다, -는 것 같다, -나 보다, -는 모양이다, -나 싶다, -는 듯하다, -는 듯싶다’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윤혜진(2010)은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 교육용 문법서<sup>10)</sup> 등에 출현하는 추측 표현 항목을 전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수가 최대 42개(어말어미도 포함됨)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그는 전체 추측 표현의 출현 중복도 분석 및 코퍼스 자료<sup>11)</sup>에서의 사용 빈도를 통계조사한 후 한국어 교육용 필수

8) Bybee *et al.* 의 양상 분류체계 가운데 한 유형인 ‘동작주 지향적(agent-oriented) 양태’는 능력의 동적양상과 의무의 의무양상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9) 선은희(2003)가 제시한 한국어 교재는 다음과 같다. 연세대 한국어학당 교재(1-6권), 서울대 언어교육원 교재(1-4권), 고려대 한국어학당 교재(한국어 1-6권, 회화 1-6권), 경희대 국제교육원 교재(초급 1-2권, 중급 1-2권, 고급 1-2권),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교재(1-4권).

10) 윤혜진(2010)이 제시한 한국어 교육용 문법서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Ⅱ(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2007)』, 『어미·조사 사전(2006)』.

11) 윤혜진(2010)이 사용한 코퍼스 자료는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2009, 12 수정판)이

항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총 20개의 선정항목 중 상위 10개의 추측 표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2)</sup>

번호	추측 표현 항목
1	-겠-
2	-(으)르것이다
3	-나/(으)ㄴ/는가 보다
4	-(으)ㄴ/는/(으)르 것 같다
5	-(으)ㄴ/는/(으)르 모양이다
6	-(으)ㄴ/는/(으)르 듯하다
7	-(으)ㄴ/는/(으)르 듯싶다
8	-(으)르지도 모르다
9	-(으)르걸
10	-(으)르 텐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는 인식양상 표현이 매우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도 자주 사용되거나 혹은 교육용으로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양상표

다.  
12) 나머지 하위 10개의 추측 표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추측 표현 항목
11	-나/(으)ㄴ/는가 싶다
12	-나/(으)ㄴ/는가 하다
13	-(으)르까
14	-(으)르까 싶다
15	-(으)르까 보다
16	-(으)르 테니까
17	-(으)르 법하다
18	-(으)르까 하다
19	-(으)르듯이
20	-(으)르지

본고는 이들 가운데 상위 10개의 추측 표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연구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는 인식양상 표현을 하나로 통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3)</sup>

한국어 인식양상 표현

어미	선어말어미	-겠-
	어말어미	-르걸, -르 텐데
구 구성	의존명사 구성	-르 것이다, -르 것 같다, -르 듯싶다, -르 듯하다, -르 모양이다
	보조용언 구성	-르지도 모르다, -르까 싶다, -르건가 보다

이 가운데 본고는 ‘-겠-, -르 것이다, -르 것 같다, -르 듯싶다, -르 듯하다, -르지도 모르다, -르까 싶다’ 등의 인식양상 표현 7종을 대조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어말어미 ‘-르걸, -르 텐데’와 ‘-르 모양이다, -르건가 보다’는 각각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르걸, -르 텐데’는 인식양상 의미가 모두 어말어미에 의해 실현되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어말어미는 다른 양상표현과 달리 청자와의 상황 맥락까지 고려된 형식으로, 화자가 순수하게 명제 자체에 대해 내리는 주관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위에서 정의한 양상 고유의 개념 즉 명제자체에 대한 판단이라는 정의와는 다소 어긋난다. 따라서 ‘-르걸, -르 텐데’를 다른 양상표현과 동일한 대상으로 취급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르 모양이다, -르건가 보다’는 주관적 판단이기보다는 화자가 객관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판단근거를 전달·지시하는 기능이 더욱 크다. 따라서 ‘-르 모양이다, -르건가 보다’ 역시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의미하는 양상의 개념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13) 본고는 인식양상 표현의 확신성 정도를 비교하는데 생길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여 이들 형식의 관형형어미를 ‘르’로 통일하기로 한다. 예컨대 추측을 나타내는 ‘-르 것이다’ 형식이 관형형어미 ‘ㄴ’이 오는 ‘-ㄴ 것이다’가 되면 그 의미가 강조나 단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뀌므로 다른 인식양상 표현과의 정확한 의미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한국어 인식양상 표현의 확신성에 대한 연구로는 서정수(1978), 이필영(1998), 강소영(2002), 안주호(2004), 이미혜(2005) 등이 있는데, 이들이 확신성 정도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한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ㄱ. 서정수(1978): 화자의 판단이 객관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주관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 ㄴ. 이필영(1998): '알다'와 '믿다'와 공기하는지의 여부
- ㄷ. 강소영(2002): 화자의 판단근거가 직접 체험한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
- ㄹ. 안주호(2004): 명제내용이 보편적 진리인지 아닌지의 여부
- ㅁ. 이미혜(2005): 화자의 판단근거가 현장의 지각경험인지 과거 경험인지 여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은 각자 서로 다른 기준으로 확신성을 판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대상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이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겠-'과 '-르 것이다'의 두 양상표현에 대한 서정수(1978)와 이미혜(2005), 장경희(1985:38-40) 등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서정수(1978)는 '-르 것이다'가 '-겠-'와 달리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짐작하는 것으로 확신성이 더욱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반대로, 이미혜(2005)는 '-겠-'이 '-르 것이다'와 달리 현장의 지각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것이므로 확신성이 더욱 강하다고 하였다. 한편 장경희(1985:38-40)는 '-겠-'과 '-르 것이다'는 확신성의 정도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유는 '-르 것이다'의 확신성이 더욱 강하다는 견해와, '-겠-'의 확신성이 더욱 강하다는 견해 양쪽에 반증의 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두 양상표현은 확신성의 등급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마다 서로 다른 판별 기준을 사용함으로 인해 [필연], [개연], [가능] 각 등급의 양상표현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있어 기

존에 제시된 단일 기준으로는 인식양상 표현의 확신성을 정확히 3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이 2종의 복합기준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여 확신성 정도를 판별할 것이다.

(1) 양상부사와의 공기 여부

첫 번째 단계는 양상부사와의 공기 여부를 통해 확신성 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명제내용을 강하게 확신할 때 사용하는 부사로 ‘틀림없이, 반드시, 확실히’ 등이 있는데, 이들과의 공기 여부를 통해 확신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만일 해당 추측 표현이 이들과 공기하지 못하고 전체문장의 의미가 부자연스럽거나 적격하지 않다면 이는 확신성 정도에서 서로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예를 보자.<sup>14)</sup>

- (2) a. 이번엔 틀림없이 그가 {이기겠다, 이길 것이다}.  
 b. 이번엔 틀림없이 그가 {?이길 것 같다, ??이길 듯싶다, ??이길 듯하다}.  
 c. 이번엔 틀림없이 그가 \*{이길까 싶다, 이길지도 모른다}.

위의 예문을 보면 (a)가 양상부사 ‘틀림없이’와 가장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는 적격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a)처럼 자연스럽게 못하다. 한편 (c)는 그 부자연스러움이 확연히 드러나 아예 공기하지 못한다. ‘-르지도 모르다, -르까 싶다’의 표현을 사용하면 화자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는 화자가 그만큼 강한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확신성 강도가 매우 높은 ‘틀림없이’와 함께 놓이게 되면 도출되는 전체 문장의 의미 역시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르지도 모르다, -르까 싶다’가 전체 추측의 인식양상 표현 중 확신성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확신성 정도에 따른

14) 예문에서는 여러 양상부사 가운데 ‘틀림없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세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인 [가능]에 해당한다.

(2) ‘P-기도 하고, ~P-기도 하다’와의 결합 여부

두 번째 단계는 ‘P-기도 하고, ~P-기도 하다’와의 결합 여부를 통한 판별 방법이다. 이는 남은 두 가지 등급의 양상표현 ‘-겠-, -ㄹ 것이다’와 ‘-ㄹ 것 같다, -ㄹ 듯싶다, -ㄹ 듯하다’ 간의 확신성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한 방법이다. 여기서 ‘P’는 명제를, ‘~P’는 부정(negation) 명제를 가리킨다. 인식양상 표현이 ‘P-기도 하고, ~P-기도 하다’와 결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이는 화자가 명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a. 비가 {올 것 같, 올 듯싶, 올 듯하}기도 하고, 안 {올 것 같, 올 듯싶, 올 듯하}기도 하다.  
 b. 비가 \*{오겠, 올 것이}기도 하고, 안 \*{오겠, 올 것이}기도 하다.

위의 예문을 보면, ‘-ㄹ 것 같다, -ㄹ 듯싶다, -ㄹ 듯하다’가 쓰인 (a)의 전체문장 의미는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겠-, -ㄹ 것이다’가 쓰인 (b)의 문장은 앞 절과 뒷 절 모두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처럼 예문 (b)가 비문이 되는 이유는 ‘-겠-, -ㄹ 것이다’를 사용할 경우 화자는 이미 적어도 중간 정도를 넘는 확신성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미 확신에 찬 상태에서 (a)와 같이 비가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다는 이중 가능성을 내세울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겠-, -ㄹ 것이다’는 ‘-ㄹ 것 같다, -ㄹ 듯싶다, -ㄹ 듯하다’와 달리 명제가 이미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쓰이는 표현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양상표현 가운데 [개연]에 해당하는 것은 ‘-ㄹ 것 같다, -ㄹ 듯싶다, -ㄹ 듯하다’이고, 이보다 더 높은 [필연]에 해당하는 것은 ‘-겠-, -ㄹ 것이다’임을 알 수 있다.

이상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어 인식양상 표현을 해당 확신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의 인식양상 분류

확신성 정도	한국어 인식양상 표현	
[필연]	선어말어미	-겠-, -ㄴ 것이다
[개연]	의존명사 구성	-ㄴ 것 같다, -ㄴ 듯싶다, -ㄴ 듯하다
[가능]	보조용언 구성	-ㄴ까 싶다, -ㄴ지도 모르다

각 등급에 속한 양상표현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연]의 양상표현은 선어말어미인 ‘-겠-’과 의존명사 구성인 ‘-ㄴ 것이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의존명사 구성인 ‘-ㄴ 것이다’ 역시 축약하여 선어말어미인 ‘-게-’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의존명사 구성에 비하여 문법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필연]의 두 양상표현은 선어말어미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개연]의 양상표현은 의존명사 구성으로, [가능]의 양상표현은 보조용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 3. 중국어 인식양상 표현의 한국어 대응상황과 발생원인

본 장에서는 예문을 통하여 위에서 분류한 중국어의 [필연], [개연], [가능]의 양상표현이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대응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 3.1 중국어 인식양상 표현의 한국어 대응상황

##### (1) ‘得’, ‘要’

첫 번째로 확신성 정도에서 [필연]에 해당하는 ‘得, 要’를 보자. 아래는 ‘得, 要’의 출현문장과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의 예이다.



- (4) a. 他准**得**来。『现代汉语八百词』(1980/2010:166)  
그는 만드시 {오겠다, 올 것이다. }
- b. 这么晚才回去, 妈妈**得**说你了。『现代汉语八百词』(1980/2010: 166)  
이렇게 늦어서야 돌아가니, 어머니가 너를 {훈내시겠다, 혼내실 것이다. }
- (5) a. 夏天屋子里太热, 树阴底下**要**凉快得多。『现代汉语词典』(第6版)(2012:1515)  
여름에는 방 안이 너무 덥다. 나무 그늘 아래가 더욱 {시원하겠 다. 시원할 것이다. }
- b. 会议大概**要**到月底才能结束。『现代汉语八百词』(1980/2010:592)  
회의는 대략 월말이 되어서야 {끝나겠다. 끝날 것이다. }

예문 (4)와 (5)에서 볼 수 있듯이 ‘得’와 ‘要’는 한국어의 [필연]에 해당하는 ‘-겠-, -ㄴ 것이다’와 부합한다. 이를 통해 ‘得, 要’가 확신성 정도에서 가장 높으므로, 한국어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의 ‘-겠-, -ㄴ 것이다’를 사용해야 표현의 의미가 가장 잘 전달됨을 알 수 있다.

(2) ‘应’, ‘该’, ‘应该’, ‘应当’

두 번째는 확신성 정도에서 [개연]에 해당하는 ‘应该, 应当, 应, 该’이다. 아래에서 이들의 출현문장과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의 예를 보자.

- (6) 他昨天动身的, 今天**应该**到了。『现代汉语八百词』(1980/2010:624)  
그는 어제 출발했으니 오늘은 {도착했겠다. 도착했을 것이다. }
- (7) 这是龙尼的, **应该**比较结实。『现代汉语八百词』(1980/2010:624)  
이것은 나일론이라서 비교적 {튼튼하겠다. 튼튼할 것이다. }
- (8) 都六点了, 他**该**来了。『实用现代汉语语法』(1983/2010:179)

벌써 6시나 되었으니 그가 {오겠다. 올 것이다. }

- (9) 此项决议顺利贯彻应无问题。『实用现代汉语语法』(1983/2010:179)  
이 결의가 순조롭게 관철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다. 없을 것이다.  
}
- (10) 他在日本住了一年, 应当会说几句日语。『汉语常用词用法词典』(1997:  
895)  
그는 일본에서 일 년 간 살았으니 일본어 몇 마디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예문 (6)~(10)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어에서 ‘应该, 应当, 应, 该’는 [개연]을 나타내지만, 실제 한국어로 대응될 경우는 [필연]의 ‘-겠-, -ㄹ 것이다’가 사용되어야 표현의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번역이 도출된다.

결론적으로 중국어에서 [개연]의 ‘应该, 应当, 应, 该’는 [필연]의 ‘得, 要’와 확신성의 정도에 있어서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한국어로 대응될 경우 모두 [필연]의 ‘-겠-, -ㄹ 것이다’의 한 가지 표현으로 번역되고 있다.

### (3) ‘会’, ‘能’

세 번째는 확신성 정도에서 [가능]에 해당하는 ‘会’와 ‘能’이다. 아래에서 ‘会, 能’의 출현문장과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의 예를 보자.

- (11) a. 他会不会去? 『现代汉语八百词』(1980/2010:279)  
그가 갈 것 같니 안 갈 것 같니?<sup>15)</sup>  
b. 现在他不会在家里。『现代汉语八百词』(1980/2010:278-279)

15) 중국어에서 추측 의미의 ‘会, 能’은 의문문으로 사용 가능하나, 한국어의 ‘-ㄹ 듯하다, -ㄹ 듯싶다’는 일반적으로 평서문으로 쓰인다. 따라서 ‘-ㄹ 듯하니?’, ‘-ㄹ 듯싶니?’와 같이 의문형식으로 바뀔 경우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지금 그는 집에 없을 {것 같다, 듯하다, 듯싶다. }

- (12) a. 早晨有雾, 今天大概能放晴了。『现代汉语八百词』(1980/2010:416)  
아침에 안개가 끼었으니 오늘은 아마 날씨가 갠 {것 같다, 듯하다, 듯싶다. }
- b. 下这么大雨, 他能来吗? 『现代汉语八百词』(1980/2010:416)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그가 올 것 같니?

예문 (11)과 (12)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어에서 ‘会’와 ‘能’은 그 등급이 [가능]이지만, 실제 이와 대응되는 한국어의 양상표현은 [개연]의 ‘-ㄴ 것 같다, -ㄴ 듯싶다, -ㄴ 듯하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중국어의 [필연]~[가능]을 나타내는 양상표현이 한국어에서는 [필연]~[개연]을 나타내는 양상표현으로 대응되고 있다. 즉, 중국어의 [필연], [개연]을 나타내는 양상표현은 한국어에서 [필연]을 나타내는 양상표현으로 대응되고, 중국어의 [가능]을 나타내는 양상표현은 한국어에서 [개연]을 나타내는 양상표현으로 대응되고 있다. 한편으로 한국어의 [가능]에 해당하는 양상표현 ‘-ㄴ지도 모르다, -ㄴ까 싶다’는 중국어의 양상조동사체계 내에서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성분이 없는데 만일 조동사 밖에서 이와 가장 근사한 대응 표현을 찾는다면 ‘可能, 也许’ 등의 양상부사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필수적인 대응성분은 아니다. 아래의 예를 보자.

- (13) a-1. 今天下午他们可能/也许去看电影。  
오늘 오후에 그들은 아마(도) 영화를 보러 {갈지도 모르다, 갈까 싶다. }
- a-2. 今天下午他们可能/也许去看电影。  
오늘 오후에 그들은 아마(도) 영화를 보러 {갈 것이다. }

예문 (13)에서 볼 수 있듯이, 양상부사 ‘可能, 也许’가 출현한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부사 ‘아마(도)’의 뒤에 양상표현 ‘-르지도 모르다, -르까 싶다’가 대응될 수 있고(a-1), 그 외의 다른 양상표현인 ‘-르 것이다’가 대응될 수도 있는데(a-2), 이 경우 양상부사 ‘可能, 也许’와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은 한국어의 부사 ‘아마(도)’이다.

그러나 ‘아마(도)’가 생략되면 양상부사 ‘可能, 也许’가 출현한 문장은 ‘-르지도 모르다, -르까 싶다’와만 대응되게 된다. 아래의 예를 보자.

(14) a-1. 今天下午他们可能/也许去看电影。

오늘 오후에 그들은 영화를 보러 {갈지도 모른다, 갈까 싶다. }  
}

a-2. 今天下午他们可能/也许去看电影。

?오늘 오후에 그들은 영화를 보러 {갈 것이다. }<sup>16)</sup>

예문 (14)는 예문 (13)과 동일한 문장에서 부사 ‘아마(도)’를 생략한 것이다. (a-1)의 경우 ‘-르지도 모르다, -르까 싶다’는 가장 낮은 단계의 추측인 [가능]을 나타내므로 ‘아마(도)’ 없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a-2)와 같이 ‘-르 것이다’를 사용한 경우는 부사 ‘아마(도)’를 생략하면 낮은 추측을 나타내는 원문(今天下午他们可能/也许去看电影。)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필연]을 나타내는 ‘-르 것이다’는 부사 ‘아마(도)’ 없이는 낮은 단계의 추측인 [가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양상부사 ‘可能, 也许’는 ‘-르지도 모르다, -르까 싶다’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조건적 대응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어 인식양상 표현과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인식양상 표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6) 여기서의 물음표 ‘?’는 한국어 문장의 표현의미가 중국어의 표현의미와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중국어			한국어		
[필연]	조동사	得, 要	[필연]	선어말어미	-겠-, -리 것이다
[개연]	조동사	应, 该, 应该, 应当	[개연]	의존명사 구성	-리 것 같다, -리 듯싶다, -리 듯하다
[가능]	조동사	会, 能	[가능]	보조용언 구성	-리까 싶다, -리지도 모르다
[가능]	부사	可能, 也许			

### 3.2 비대칭 대응의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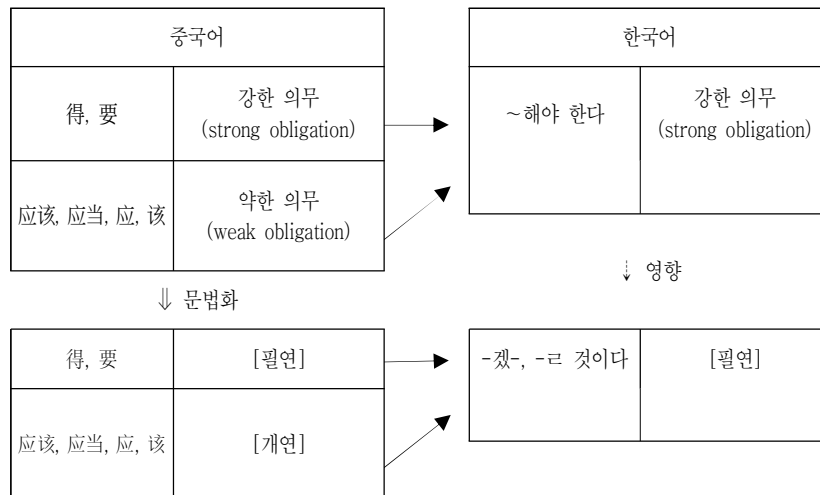
#### (1) [필연], [개연]→[필연] 상황

중국어의 [필연]과 [개연]의 양상표현은 한국어에서는 [필연]에 대응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비대칭적인 대응 현상이 비단 인식양상뿐 아니라 의무양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得, 要’와 ‘应该, 应当, 应, 该’는 의무양상에서 인식양상으로 문법화된 것이다. 의무양상을 나타낼 경우에도 ‘得, 要’와 ‘应该, 应当, 应, 该’는 의무의 강·약으로 정도가 구분된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어 표현으로 옮겨지면 그 구분이 없어지는데, 이유는 모두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해야 한다’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어		한국어	
得, 要	강한 의무 (strong obligation)	~해야 한다	강한 의무 (strong obligation)
应该, 应当, 应, 该	약한 의무 (weak obligation)		

이를 통해, 인식양상의 비대칭 대응이 사실 의무양상에서 먼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대응방식이 이후 문법화되어 나타난 인식양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동일한 대응 패턴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대응현상은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대응되는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 한국어로 대응되는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영어의 양상조동사 ‘must’는 강한 의무의 의무양상에서 [필연]의 인식양상으로 문법화된 것으로 중국어의 ‘得, 要’에 해당한다. 반면 ‘should’는 약한 의무의 의무양상에서 [개연]의 인식양상으로 문법화된 것으로 중국어의 ‘应该, 应当, 应, 该’에 해당한다.

먼저 의무양상을 나타내는 ‘must’와 ‘should’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경우를 보자. 아래의 예처럼, 두 표현은 일률적으로 강한 의무의 ‘~해야 한다’로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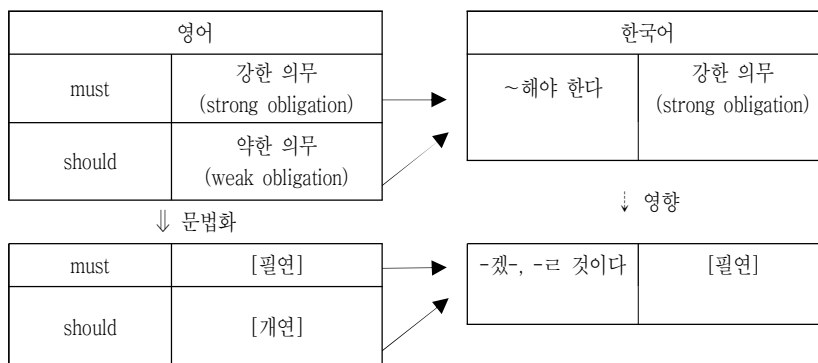
- (15) a. All visitors **must** report to reception. 『옥스포드 영한사전』  
(2008/2009:1122)  
모든 방문객들은 안내 데스크에 신고**해야 한다**.
- b. All visitors **should** report to the porter's lodge. 『옥스포드 영  
한사전』 (2008/2009:1009)  
모든 방문객들은 수위가 있는 수위실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식양상을 나타내는 ‘must’와 ‘should’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경  
우를 보자. 아래의 예처럼, 이 역시 강한 확신성의 [필연]을 나타내는 표현으  
로 나타나고 있다.

- (16) a. You **must** be hungry after all that walking. 『옥스포드 영한사  
전』 (1980/2010:1123)  
그렇게 많이 걸었으니 넌 배가 **고플 거야**.<sup>17)</sup>
- b. The roads **should** be less crowded today. 『옥스포드 영한사전  
』 (1980/2010:1579)  
도로가 오늘은 덜 복잡**할 것이다**.

이처럼 영어도 중국어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무양상과 인식양상에 존재  
하는 강·약이 한국어로 대응될 경우 강으로 통일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  
서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는 경우 발생하는 인식양상의 비대칭 대응현상  
역시 아래의 도식과 같이 기존 의미인 의무양상의 대응방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17) ‘-르 거야’는 ‘-르 것이다’의 축약형이다.



결론적으로, ‘得, 要’와 ‘应该, 应当, 应, 该’가 일괄적으로 ‘-겠-, -르 것이다’로 대응되는 배경에는 기존 의무양상에 대한 비대칭 대응현상이 인식양상에도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 (2) [가능]→[개연] 상황

중국어의 [가능]의 양상표현은 한국어의 [가능]으로 대응되지 않고 [개연]으로 대응되어 또 다른 비대칭 대응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원인은 문법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어의 [가능]의 양상표현 ‘-르까 싶다, -르지도 모르다’는 보조용언 구성이며 [개연]의 양상표현 ‘-르 것 같다, -르 듯싶다, -르 듯하다’는 의존명사 구성으로, 이들 모두 우언적(periphrastic) 형식을 이룬다. 즉 한국어의 [가능]과 [개연]의 양상표현은 문법적으로 아직 전형적이지 않은 ‘준 문법적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문법화 정도를 살펴보면 두 표현 간에도 상대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보조용언 구성으로 이루어진 [가능]의 양상표현 ‘-르까 싶다, -르지도 모르다’가 의존명사 구성으로 이루어진 [개연]의 양상표현 ‘-르 것 같다, -르 듯싶다, -르 듯하다’보다 문법화의 정도가 더욱 낮다.



Hopper&Traugott(1993:6-7)은 문법화 과정을 다음과 같은 연속변이(cline of grammaticality)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내용어(content item) > 문법적 단어(grammatical word) > 접어(clitic) >  
굴절접사(inflexional affix)

이 가운데 ‘문법적 단어(grammatical word) > 접어(clitic)’의 범위가 바로 우연적 형식에 해당하는데 이 중 보조용언 구성으로 이루어진 [가능]의 양상 표현 ‘-르까 싶다, -르지도 모르다’는 보다 덜 문법화된 문법적 단어(grammatical word)에, 의존명사 구성으로 이루어진 [개연]의 양상표현 ‘-르 것 같다, -르 듯싶다, -르 듯하다’는 보다 더 문법화된 접어(clitic)<sup>18)</sup>에 해당한다.

현 국어사전에서는 [개연]의 의존명사 구성인 ‘듯싶다’와 ‘듯하다’를 하나의 보조형용사로 보아 이미 한 단어로 처리하고 있다. ‘것 같다’는 아직 한 단어로까지 보진 않으나 표기상으로 붙여 쓰기도 하고 띄어쓰기도 하는 등 규범적인 면에서 유동적인 모습을 보인다.<sup>19)</sup> 또한 ‘르 것이다’가 때로 선어말어미인 ‘-게-’로 쓰이기도 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존명사 구성 중에는 이미 접어에서 융합이 이루어진 굴절접사로 문법화된 경우도 있다.

의존명사 구성으로 이루어진 양상표현에 비해서, 보조용언 구성으로 이루어진 ‘-르까 싶다, -르지도 모르다’는 선·후행용언의 분리성이 강해 선행용언이 자립적으로 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접어의 단계로 문법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아래의 예를 보자.

18) 호광수(1999)에 의하면, 접어는 자립적 어휘소가 문법소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것으로, 아직 융합(fusion)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선·후의 요소와 긴밀하게 굳어져 통합은 이루어진 상태이다.

19) 대표적 경우로 이필영(1998)을 들 수 있다. 그는 인식양상 표현 중 관형구성(본고의 의존명사 구성)으로만 된 것을 논의하였는데, 이 가운데 ‘것 같다’를 ‘듯하다’, ‘듯싶다’, ‘모양이다’처럼 일률적으로 ‘것같다’로 표기하고 있다.

- (17) a. 매일 간절히 기도하면 나의 소망 이루어질까(나).  
 b. 매일 간절히 기도하면 나의 소망 이루어질지도.

예문 (17)에서 볼 수 있듯이 후행용언 ‘싶다’, ‘모르다’가 생략되어도 전체 문장의 의미가 어색하지 않고 완전한 문장이 성립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의존명사 구성으로 이루어진 [개연]의 양상표현이 보조용언 구성으로 이루어진 [가능]의 양상표현보다 내부 요소의 결속력이 더욱 긴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가능]의 양상표현이 [개연]의 양상표현보다 문법화가 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가능]의 양상표현 ‘-르까 싶다, -르지도 모르다’는 사실 ‘싶다’, ‘모르다’라는 개별적인 어휘가 크게 작용하여 추측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이 나타내는 인식양상 의미는 엄격히 말해 문법적 기능이 아닌 어휘적 기능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와는 달리, 중국어의 [가능]의 양상표현은 조동사 ‘會, 能’의 문법적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의 [가능]의 양상표현과 중국어의 [가능]의 양상표현은 각 언어에서 동일한 확신성 정도를 나타내지만, 문법적 지위에서는 두 표현 간에 일정 정도 간격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의 초보적인 추측에 의하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중국어의 [가능] 표현을 한국어로 대응시킬 경우, 문법적 자격을 갖춘 성분으로 대역하려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가능]보다 확신성 정도가 한 등급 높다하여도 상대적으로 보다 더 문법화된 [개연]의 양상표현으로 대응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중국어의 어휘적 표현방식에 의한 또 다른 [가능] 표현 ‘可能, 也许’가 ‘-르지도 모르다, -르까 싶다’로 대응되는 이유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설명가능하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可能, 也许’는 부사성분으로 문법적 표현방식이 아닌 어휘적 표현방식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한국어의 세 가지 양상표현 중 어휘적 의존성이 높은 ‘-르지도 모르다, -르까 싶다’가 부사 ‘可能, 也许’와 조건적 대응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나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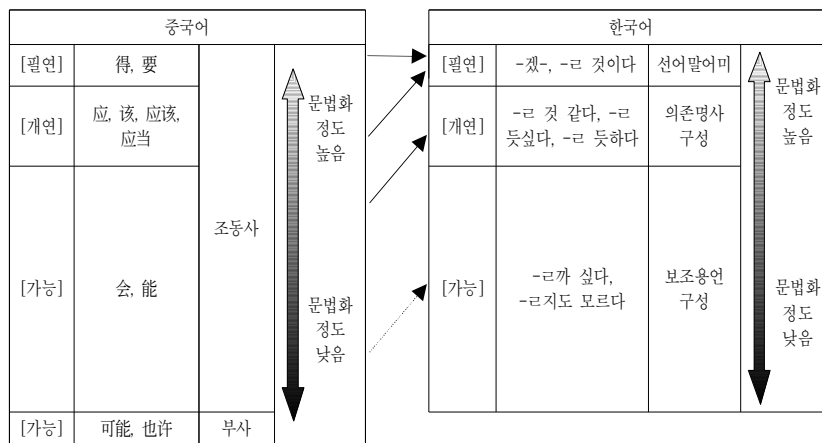
본고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양상표현방식을 문법적 표현방식과 어휘적 표현 방식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이 중 인식양상 표현에 중점을 두어 각각 확신성에 따른 [필연], [개연], [가능]의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 결과를 토대로 중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대응양상을 살펴보고, 대응 결과의 발생원인도 아울러 논의하였다. 다음은 이에 대한 고찰 결과이다.

첫째. 중국어에서 [필연]과 [개연]을 나타내는 조동사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은 ‘-겠-’, ‘-ㄹ 것이다’이며 이는 한국어의 [필연]에 해당한다.

둘째. 중국어에서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은 ‘-ㄹ 듯하다’, ‘-ㄹ 듯싶다’, ‘-ㄹ 것 같다’이며 이는 한국어의 [개연]에 해당한다.

셋째. 한국어의 [가능]을 나타내는 양상표현은 중국어에서 ‘可能’, ‘也许’ 등과 같은 양상부사에 의해 표현된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넷째, 중국어에서 [개연]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한국어의 [필연]을 나타내는 양상표현으로 비대칭 대응되는 원인은 인식양상의 연원과 관련된다. 즉, 인식양상으로 문법화되기 이전인 의무양상에서 먼저 발생한 비대칭 대응이 이후 인식양상의 대응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중국어에서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한국어의 [개연]을 나타내는 양상표현으로 비대칭 대응되는 원인은 양상표현의 문법화 정도와 관련된다. 중국어에서는 [가능]을 나타내는 양상표현으로 조동사 ‘會, 能’을 사용하고 있기에 한국어에서도 문법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ㄴ 것 같다, -ㄴ 듯싶다, -ㄴ 듯하다’의 [개연]으로 대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어에서 [가능]을 나타내는 ‘-ㄴ까 싶다, -ㄴ지도 모르다’는 문법화 정도가 낮아(즉, 어휘적 의존성이 높음) 중국어에서 [가능]을 나타내는 부사 ‘可能, 也許’와 조건적 대응관계를 가진다.

본고는 중·한 인식양상표현에 대해 확신성을 기준으로 대조한 연구인만큼 각 등급에 해당하는 양상표현들 간의 미세한 의미차이까지 함께 비교하지는 못하였다. 인식양상 표현 간의 용법상의 차이 및 이와 관련한 중·한 양상표현 간의 관계 등에 대한 고찰은 후속 연구에서 계속해보고자 한다.

## 參考文獻

- 吕叔湘主编,『现代汉语八百词』(增订本),北京:商务印书馆,1980/2010.
- 刘月华·潘文娉·故鞲,『实用现代汉语语法』(增订本),北京:商务印书馆,1983/2010.
- 李明,「汉语助动词的历史演变研究」,北京大学博士学位论文,2001.
- ,「汉语表必要的情态词的两条主观化路线」,『语法研究和探索(十二)』,中国语文学杂志社编,北京:商务印书馆,2003.
- 李晓琪·刘德联·牟淑媛·刘元满·杨德峰,『汉语常用词用法词典』,北京:北京大学出版社,1997.
- 吴福祥,「汉语历史语法研究的检讨与反思」,『汉语史学报』,上海:上海教育出版社,2005.
- 朱冠明,「情态与汉语情态动词」,『山东外语教学』第2期,2005.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编,『现代汉语词典』(第6版),北京:商务印书馆,1978/2012.
- 曾锦程,「汉语可能性认识情态动词的语法化研究」,湖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09.
- 彭利贞,『现代汉语情态研究』,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8.
- 夏赛辉·张文忠,「汉语或然性认识情态动词的语法化研究」,『求索』第6期,2010.
- 강소영,「[확연], [당연], [개연]의 양태표지 연구」,『한국어학』16,2002.
- 김동욱,「한국어 추측 표현의 의미 차이에 관한 연구: ‘-ㄴ 것 같다’, ‘-ㄴ 듯 하다’, ‘-ㄴ 가 보다’, ‘-ㄴ 모양이다’의 의미차이를 중심으로」,『국어학』35,2000.
- 김세령,「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추측 표현 교육 방안 연구」,『국어교과교육연구』17,2010.
- 박재연,『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경기도:태학사,2006.
- 서정수,「‘ㄴ 것’에 관하여」,『국어학』6,1978.
- 선은희,「한국어 문법 교수 방안 연구: 추측 범주 ‘-는 것 같다’, ‘-나 보다’, ‘-는

- 모양이다'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송경안 · 이기갑 외, 『언어유형론3』, 서울: 도서출판 月印, 2008.
- 안주호, 「한국어 추측 표현의 통사·의미 연구」, 『새국어교육』 68, 2004.
- 엄녀, 「한, 중 양태 표현의 대조적 고찰 -한국어 “-(으)ㄴ 수 있다”와 중국어 “能(能)”의 대조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008.
- 왕례량, 「한국어 보조용언과 중국어와의 대조 연구」, 『문법교육』 5, 2006.
- 윤혜진, 「한국어 교육용 추측 표현 항목 선정과 등급화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미혜,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 -추측표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이선웅, 「국어의 양태 체계 확립을 위한 시론」, 『관악어문연구』 26, 2001.
- 이영,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양태 표현의 대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옥환, 「한국어와 중국어의 양태표현 대조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필영, 「국어의 인지 표현에 관한 연구: 관형구성의 불확실성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9, 1998.
- 장경희,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서울: 탑출판사, 1985.
- 전나영, 「“-나 보다/-ㄴ 모양이다/-ㄴ 것 같다/-ㄴ 것이다/-겠”의 의미 기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6, 1999.
- 정유남, 「현대 국어 추측의 양태 의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최재영, 「중국어 조동사 연구」, 『중국연구』 43, 2008.
- 학연영, 「한국어 양태술어와 중국어 양태조동사의 대조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호광수, 「보조용언의 문법화 과정」, 『인문과학연구』, 1999.
- A. S. Hornby 저, 정영국·조미옥 편역,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옥스포드 영한사전』, Oxford University Press. 2008/2009.
- Joan Bybee, Revere Perkins and William Pagliuca 저, 박선자·김문기 역, *The*

*Evolution Of Grammar*, 『문법의 진화』, 서울: 소통. 1994/2010.

Hopper, Paul J., Traugott, Elizabeth Closs., *Grammaticaliza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lt;Abstract&gt;

## A Contrastive Study on the Epistemic Modality Expressions of Chinese and Korean

- With Focus on the Method of Grammatical Expression -

Choi Jaeyoung · Suh Jieun

Modality is a semantic category that indicates the subjective attitude of the speaker towards the proposition. As a kind of modality, epistemic modality indicates the speaker's speculation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proposition, and can be further divided into [necessity], [probability], and [possibility]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speaker's commitment. The method of expression of modality differs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This paper illustrates the modal expressions of the Chinese and Korean languages, which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t then classifies the epistemic modal expressions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speaker's commitment, as mentioned abov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how the Chinese modal expressions correspond to the Korean modal expressions is discussed.

The corresponding relations between the Chinese and Korean modal expressions are as follows:

Chinese			Korean		
Necessity	Auxiliary verb	得(dei), 要(yao)	Necessity	Non-terminal suffix	-겠(-gess-), -르 것이다(-l geos-ida)
Probability	Auxiliary verb	应(ying), 该(gai), 应该(yinggai), 应当(yingdang)	Probability	Defective noun construction	-르 것 같다(-l geos gatda), -르 듯싶다(-l deus-sipda), -르 듯하다(-l deushada)
Possibility	Auxiliary verb	会(hui), 能(neng)	Possibility	Auxiliary predicate (verb and adjective) construction	-르까 싶다(-lkka sipda), -르지도 모르다(-lji(do) moleuda)



Possibility	Adverb	可能(keneng). 也许(yexu)
-------------	--------	-------------------------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e above analysis results.

First, the Chinese auxiliary verbs that belong to [necessity] and [probability] correspond to “-겠-(-gess-)” and “-ㄴ 것이다(-l geos-ida), ” which belong to [necessity].

Second, the Chinese auxiliary verbs that belong to [possibility] correspond to “-ㄴ 것 같다(-l geos gatda), ” “-ㄴ 듯싶다(-l deus-sipda), ” and “-ㄴ 듯하다(-l deushada), ” which belong to [probability].

Third, the Korean modal expressions that belong to [possibility] have a conditional relation with the Chinese modal adverbs, such as “可能(keneng)” and “也许(yexu).”

Key Words : modality, epistemic modality, contrastive study of Chinese and Korean, modal auxiliary verb, modal adverb

투 고 일 : 2013. 1. 10. / 심 사 일 : 2013. 1. 20. ~ 2013. 2. 10. / 게재확정일 : 2013. 2. 17.